

● 開 會 辭



國際圖書館協會聯盟會議

準備의 해로

會長 李 瑄 根

親愛하는 圖書館界 同志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任席하신 내의 귀빈 여러분, 마쁘시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第 21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에 參席하여 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本協會가 創立된 것이 어언 스므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친목적인 協助와 적극적인 參與에 힘입어 꾸준히 發展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本協會가 創立된 1955年 當時 全國의 圖書館이 70餘個 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3千餘個의 圖書館으로 숫자적인 增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社會 全體的인 發展과 要求에 미치지 못하는 未盡한 狀態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社會는 圖書館의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支援에 吝嗇한 것 같으며 善意的 환영은 받으나 실질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現實이 社會에 그 責任이 있다고 해서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打開해야겠다는 굳은 決意가 앞서야 될 것입니다.

그간 協會를 中心으로 어려운 現實속에서 우리의 進路를 開拓해 보고자 꾸준히 努力을 傾注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協會는 여러 가지 事業을 계획하여 推進하였으나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財政自立的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時點에서 수년간 얼마간의 補助金을 國家로부터 받아 왔었으나 지난해부터 中斷되어 極度の 財政難에 試練을 겪는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中에서도 한가지 큰 結實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國際圖書館協會聯盟會議을 오는 1976年 6월에 本協會의 主管으로 서울에서 開催기로 된 일입니다.

이 國際會議은 60餘個國에서 600餘名의 各國의 圖書館界人士 및 學界의 著名人士들이 代表로서 參席하게 되는 建國史上 由來에 없었던 最大規模의 國際會議입니다. 이 國際會議은 우리 나라의 圖書館發展은 勿論 國威宣揚과 國際間의 理解增進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 圖書館文化의 꽃을 찬란히 피우게 하기 위한 크나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確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國際會議을 誘致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難關에 봉착되기도 했으나 會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으며 協會 任員 여러분들의 큰 勞苦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큰 行事를 우리가 誘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圖書館界의 力量을 과시한 것이며 韓國의 圖書館界가 國際社會에서 크게 認定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國家的인 行事를 위하여 政府에서도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우리들 스스로 準備를 서둘러야 될 것이며 今年度에는 이를 위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今年에는 어려운 協會의 財政難을 會員 여러분들의 친목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打開해 나가면서 各種 事業을 推進하는 한편 우리 나라 圖書館發展의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게 될 1976年 國際圖書館協會聯盟會議 準備를 위하여 集中해야 될 것임을 거듭 強調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時機에 圖書館界 同志 여러분들의 굳은 결속과 분발을 당부하면서, 이번 第21次 定期總會가 우리 나라 圖書館 歷史에 새로운 時發點이 되도록 여러분의 努力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